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아서

임경화**

북구의 언어학자 조승복의 어떤 전후사*

초록 재일조선인의 전후사는 일반적으로 냉전체제의 형성으로 인한 남북 분단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남과 이북을 각각 추종하는 단단계와 총련계의 대립으로 그려져 왔다. 이 대립구도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동포조직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립 구도를 넘어서려는 시도 또한 해방 초기부터 존재했다. 본고에서는 그 초기 사례로 조승복의 실천 운동을 다루고자 한다. 만주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거쳐 스웨덴에서 언어학자로 활약하며 통일운동에 힘쓴 재외동포로 알려진 조승복은 실은 재일조선인의 전후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만주국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39년에 독일하여 제1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1948년에 도미할 때까지 9년간을 재일조선인으로 살았다. 그에게 일본 체류는 일본의 식민주의로 인해 차별받는 조선인들을 발견하고 차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적 이상사회로서의 단일민족 국가 건설을 꿈꾸게 했던 곳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재일조선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국을 거쳐 스웨덴에 정착한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이어 갔다.

그는 1990년대 말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자서전을 집필하는데, 거기에는 만주 출신 조선인으로서의 독특한 위치와 함께 그가 아니었으면 체험하지 못했을 귀중한 경험들이 담겨 있다. 그 중심축의 하나가 경계인으로서 참여하고 바라본 재일조선인의 전후사 속에서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재일조선인 사회를 추구하려는 그의 실천 운동이었다. 본고에서는 1939년부터 조승복이 그려 낸 재일조선인의 전후사를 재구성하여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주제어 조승복, 재일조선인, 중립주의, 통일운동, 만주국, 총련, 민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부교수

1. 머리말

재일조선인의 전후사는 냉전체제의 형성으로 인한 남북 분단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남과 이북을 각각 추종하는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계열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대립으로 그려져 왔다.¹ 이 대립 구도는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1세대가 사라지고 2·3세대의 귀화, 동화, 이탈 등으로 동포조직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 구도를 넘으려는 시도 또한 이어져 왔다. 1970년대에 재일동포들의 일본 정주화가 큰 흐름을 만들면서 이 대립 구도가 ‘조국 지향’으로 상대화되고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주민’ 혹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중시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의 모색이 대표적인 것이다.² 하지만, 재일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조국 지향’이 뜨거웠던 해방 초기에도 남과 북을 넘는 통일을 향한 전체적인 시점을 가지고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의 민족으로서의 권리 옹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도는 존재했다.

본고에서는 그 초기 사례로 스웨덴에서 저명한 언어학자로 활약한 조승복(1922~2012)의 삶과 사회적 실천을 다루고자 한다. 조승복이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스웨덴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3개 언어인 조선어,³ 중국어, 일본어의 음운연구를 각각 수행하여 1962년과 1964년에 스톡홀름대학에서 각각 조선학과 일본학의 도슨트(docent)가 되어 동양 언어

-
- 1 재일조선인사의 개괄은 水野直樹·文京洙(2015),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岩波書店 참조.
 - 2 飯沼二郎 編(1988), 『在日韓国・朝鮮人: その日本社会における存在価値』, 海風社; John Lie (2008), *Zainichi (Koreans i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3-167.
 - 3 조승복은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통일적으로 명명할 때 ‘조선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고에서도 한반도 분단 이전에 한반도를 떠난 조승복과 같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연원을 존중하여 ‘조선어’로 표기한다.

학 연구자로 자리를 잡은 후부터다.⁴ 이후 1966년부터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의 씨를 뿌린 '통일주의자'로 소개되기 시작하여⁵ 한국사회에서는 스웨덴에서 언어학자로 활약하며 남북한 어디와도 교류하며 통일운동에 힘쓴 재외동포로 알려져 왔다.⁶

그런데 그는 실은 간도에서 태어나 만주국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39년에 도입한 후 도쿄의 구제(舊制) 제일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48년에 도미할 때까지 9년간을 재일조선인으로 살았다. 더욱이 그에게 일본은 유학을 위한 거주지로서의 의미를 넘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한 공간이었다. 그는 패전 이후에도 일본에 남아 재일조선인의 권리 옹호 운동에 참가했으며, 미국을 거쳐 스웨덴에 정착한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이어 갔다. 그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외부자인 동시에 내부자였고, 재일조선인 사회를 떠났음에도 이어져 있었던 경계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90년대 말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자서전을 집필한다. 2004년에 『분단의 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4 조승복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동아일보』 1964년 10월 20일자에 황희영이 쓴 기사 「北歐의 東洋學: 스웨덴 '웁살라'대를 다녀와서」이다. 황희영은 당시 조승복을 웁살라대학 동양학과의 책임자로 소개하며 「歐美 大學에 學科長으로 추대된 최초의 한국인 교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망명을 위한 출국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잠시 소지한 것 외에는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으며, 그가 받은 '도슨트'라는 칭호는 유급 연구직으로 '교수 예비군'에 해당한다. 당시 조승복은 1960년대 스웨덴의 대학 학제에서 동양학이 중국학과 일본학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어와 조선어, 일본어 음운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내기도 본인이 바라던 중국학이 아닌 일본학 담당으로 밀려나는 과정에 있었다. 이후 1972년에 일본학 정교수직 설치안이 스웨덴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조승복은 1975년에 북구에서 최초로 일본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5 「歐洲의 韓國學: 瑞典 웁살라 大學, 主任教授가 韓國人, 祖國 심는 趙承福씨」, 『동아일보』 1966년 7월 9일.

6 변광수(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김영호(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을 읽고」,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이현복(2015), 「고루 이극로 선생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며」, 『고루 소식』 6, 고루 이극로 박사 기념사업회.

에서 출판된 그의 회고록에는 그가 아니었으면 체험하지 못했을 귀중한 경험들이 담겨 있다. 이 특별한 체험의 바탕에는 우선 그가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인이었다는 출신의 특수성이 있었다. 그는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서 자라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조선인 이민 2세 출신이자 만주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일본에 거류하게 된다, 더욱이 그는 전전에는 제일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전 후에는 GHQ에서 일본의 전후 개혁을 감독하는 민간정보교육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일조선인 운동에도 가담하며 사회 계층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활동했다. 이로 인해 조승복은 식민지 조선 출신 제일조선인이라면 허용되지 않았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경계인으로서 바라본 제일조선인의 역사와 제일조선인 사회의 대립 구도를 지양하려는 그의 실천 운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의 자서전⁷⁾을 중심으로 그가 그려 낸 제일조선인사를 재구성하며 중립의 제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2. 간도 출신 조선인 조승복

조승복은 1945년 해방을 맞은 직후부터 고집스럽게 남한과 북한, 좌익

7 본고에서는 한국어판 자서전 『분단의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2004) 외에 그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어판 자서전인 *En Korean i Folkhemmet* (2014)을 참조하면서 한국어판의 오류를 보정했다. 아울러 스웨덴어판 자서전에는 사진, 언론 보도, 공문서 등 다수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한국어판 자서전의 기술을 자료로 보완할 때 참조가 되었다. 한국어판 자서전은 일기 등 평소에 메모해 두었던 기록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곳곳에 기록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보인다. 스톡홀름 대학에는 조승복이 남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자서전 집필에 참고했을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조승복의 자료들은 북유럽 동양학 연구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사, 한국 민주화 운동사, 재외동포 민주화·통일 운동사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 우익, 혹은 미국(자본주의 진영)과 소련(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끊임없이 ‘중립’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거기에서 민주주의적 이상사회로서의 통일국가를 상상하며 통일운동에 힘썼다. 그런데 그가 “분단된 민족을 다시 합치는 통일운동에 집중”⁸한 데에는 그가 만주 출신 이민 2세였다는 출신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후하여 자신의 부모·형제와 함께 일가가 농업 이민의 형태로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 화룡현(和龍縣)에 정착했다. 이 주변은 동만주의 대표적인 벼농사 지역이었다. 조승복의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하여 그것으로 만주에서 땅을 샀고, 그 땅을 물려받은 조승복의 아버지는 소작료를 받아 근근이 생활하는 부재지주에서 자작농으로 몰락해 가던 무학의 농민이었다. 재만조선인 인구는 일제시대 초기인 1910년에 이미 20만에 이르렀고, 조승복이 태어난 1922년에는 약 65만 명 규모의 조선인 이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⁹ 같은 시기 재일조선인 인구가 약 6만 명 정도였으니,¹⁰ 이보다 거의 10배 정도 규모의 재만조선인 사회는 당시 조선의 외부에 형성된 가장 큰 조선인 사회였던 것이다. 재만조선인 사회와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주 인구의 극단적 불균형은 일제의 조선인 이주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양자가 연동되어 있었던 탓이기도 하다. 즉, 일제는 조선인들의 ‘내지’ 도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주 이민을 묵인하거나 장려했으며, 반대로 전시체제가 본격화하고 군용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강제동원 방식으로 조선인이 내지의 노동력으로 동원되자 만주 이민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¹¹

8 조승복(2004), 『분단의 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 상, 대구: 케리그마, p. 41. 이하, 한국어판 자서전을 인용할 때는 본문에 권명과 쪽수를 괄호주로 표시한다.

9 金哲(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p. 28; 黃有福 主編(2009), 『中國朝鮮族史研究』, 民族出版社.

10 森田芳夫(1996), 『数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p. 71.

11 김기훈(2008), 「만주의 코리아나 디아스포라: 제국내 이민(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조승복은 일제가 만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만주국을 수립하여 재만조선인 사회가 급속히 확대되었을 때 만주에서 자랐고 전시체제하에 재일조선인 사회가 급속히 확대될 때 내지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으며, 해방 직후 그것이 급속히 축소되어 갔던 대격변기를 일본에서 보냈다. 뒤에서 언급하듯이, 그가 해방 후 재일조선인 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이러한 조선인 이민사회의 극심한 변동을 만주와 일본에서 경험한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승복은 자서전에서 그가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만주국 시절 조선인 이민사회의 ‘문화 중심지’(상, 64)였던 용정(龍井)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의 모습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문화, 기독교 문화, 조선 문화뿐만 아니라 동만주의 국경지대였던 관계로 소비에트 문화와 제정 러시아의 문화도 구성요소로 섞여 있던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용정은 ‘간도 복음의 발상지’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 선교 활동이 활발했으며, 그중에서도 ‘영국 언덕’¹²에는 1913년부터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가 선교 활동을 개시하여 1918년에는 제창병원을 설립하여 신식 의료사업도 전개하고 1920년에는 은진중학교 등을 설립하여 교육사업도 본격화했다. 뿐만 아니라 백계 러시아 주민들도 있었고 용정 주민들은 하얼빈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조승복 자신도 중학교 시절에 하얼빈을 방문하여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 경관을 체험한다. 그에게 만주는 개척지 특유의 진취성과 국제성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승복이 그려 낸 조선인 이민사회의 심층은 만주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했던 “일본인과 중국인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였다(상, 44). 조승복이 태어나기 전인 1920년에는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

12 캐나다가 대영제국의 속령이었던 관계로 법적으로 캐나다인들이 대영제국 시민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집단 거주지가 ‘영국 언덕’으로 불렸다.

목으로 일제가 간도의 조선인들을 학살한 간도참변이 있었다. 그 한편으로 일본 침략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간주하여 압박했다. 마적 습격은 중국인들의 반한(反韓) 정서의 표출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조승복에게 만주는 항상적으로 마적의 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극도로 불안한 사회였다. 1929년에 그의 큰아버지가 마적의 습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32년에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마적의 출현은 잦아들었지만, 조선인들은 “늘상 일본 침략자들의 공포정치와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상, 49). 조승복은 “일본 침략자들과 일본 침략을 미워하는 중국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고생한 것이 바로 간도 이민들을 비롯한 재중(在中) 조선 사람들”(상, 49)이었다고 보았다. 조승복에게 만주 시절은 불안과 공포를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출세를 향해 매진했던 시기였다.

어린 조승복에게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업이었다. 그리고 당시 ‘기회의 땅’으로 선전되었던 만주는 조선인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고 그에 따라 군관학교, 사범학교, 국립대학 등의 교육기관들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업 성취를 통한 사회적인 상향 이동이 가능했던 역동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물론 그가 무학의 농사꾼 부모 밑에서 자라 제국 일본의 최고 학부인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한 데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찍이 교육열이 높았던 조승복의 아버지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를 구식 서당에 보내 한문을 습득하게 한다. 높은 성취도를 보였던 그는 그 때문인지 연길 제38교(4년제)라는 중국 소학교에 강제로 입학당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인 ‘보안병’ 한 사람이 서당에 와서 나를 중국인 소학교로 데려갔다”고 한다(상, 61). 그는 그 이유를 몰랐고, 다만 “조선사람들을 중국문화에 동화시켜 자기네 편에 끌어들이려는 술책”이라고 추측했다(상, 62).

당시 재만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주도권 경쟁을 고려하면 조승복의 추측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만조

선인들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서 중국 측 으로부터는 ‘간민’(墾民), ‘귀화인’으로 파악되는 동시에 일본 측 으로부터는 대륙 진출의 첩병 역할이 기대되었던 ‘일본국 신민’으로 간주된 이중적 지위의 과제 민족(cross-border ethnicity)이었다. 그로 인해 일본도 중국도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조선인들의 자치적 교육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일본 측은 대륙 침략을 위한 식민주의 교육을 강요하려고 한 반면, 중국 측은 일제의 세력 침투를 방지하려는 필요성에 따라 조선인을 자국민으로 편성하려는 동화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양 세력 간의 줄다리기는 191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만주국 성립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동북 일대를 통치하던 장쥘린(張作霖)의 군벌세력은 강력한 통제력도 효율적인 행정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조승복의 회고에 따르면 시설도 낙후되었고 교사도 부족하여 아동부터 성인까지 같은 학급에서 중국어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이러한 중국인 학교의 수준은 재만조선인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승복은 중국인 학교에서 일대일 교육을 받았고, 1년 반 만에 4학년 과정에 진입할 무렵(1930년), 이번에는 조선인민회 사람들이 그를 조선총독부 관할하의 이도구 소학교(6년제)로 데려간다. 조선인민회는 1910년대부터 만주에 조직된 친일 단체로 조선인 사회의 민족교육을 억압하는 역할도 맡았던 ‘총독부의 앞잡이’(상, 63) 기관이었다. 조승복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이들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이 소학교는 조선인 선생님들에 의해 조선어로 교육되었고 시설도 중국인 학교보다 좋았다고 한다. 당시 만주에서 조선인 아동들이 얼마나 조승복과 유사한 체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조선인 학생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과 같은 상황은 만주 조선인 사회의 장악을 위해 양국에서 벌이는 주도권 싸움을 연상시키는 모습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조승복은 조선총독부 관할 소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에 용정에 있는 광명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가 광명중학교를 선택한 것은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유일한 학교”라는 주위의 평판 때문이었다. 광명중학교는 일본 ‘외무성 지정학교’였다. 이 학교의 일본인 경영자인 히다카 헤이시로(日高丙子郎)는 간도참변 직후 ‘민족협화’를 내걸며 용정에서 광명회(光明會)를 설립하여 조선인 교화사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1925년에는 ‘배일(排日)의 소굴’로 여겨졌던 영신중학교를 접수하고 외무성과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중등교육사업을 개시했다.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만주사변 이후가 되면 1934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1935년에는 외무성 지정학교 인가를 받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만주지역의 명문 중학교로 자리를 잡게 된다.¹³ 당연히 용정의 다른 중학교들보다 경쟁률도 높았다. 광명중은 1년 1반제 학교로 조승복이 입학했을 때 정원은 45명이었고 조선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있었다. 교수용어는 일본어였지만 거의 모두 조선인 학생들이었다. 교사들의 학력도 높았다고 한다.

조승복은 『만선일보』(滿鮮日報) 배달부와 가정교사를 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지만, 성적은 항상 5등 안에 들었다. 그가 묘사하는 광명중은 만주국 통치이념인 ‘오족협화’와 일본의 조선 통치이념인 ‘내선일체’를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광명회는 유교, 불교, 신도(神道)에 기독교까지 뒤섞인 혼합종교의 성격을 띤 신흥종교로 기독교 세력이 강한 재만조선인 사회의 융화공작을 위해 실정에 맞게 히다카에 의해 독창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한다.¹⁴ 그 영향인지 황국신민교육이 한창이었을 때에도 학교는 서양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도쿄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교장은 영어 회화도 수준급이었고, 조승복이 속한 학급의 담임이었던 장내원 또한 영어 선생님이었다. 광명중 선

13 許壽童(2008), 「間島光明會と永新中學校：韓日中の「理想郷」は可能だったろうか」, 『만주연구』 8. 영신중학교라는 학교명은 1934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광명중학교로 개칭되었고, 1938년부터는 ‘간도성립(省立) 제1국민고등학교’로 개칭된다.

14 倉田明子(2020), 「近代中国「間島」地域のキリスト教」, 『Quadrante』 22, 東京外国語大学海外事情研究所, p. 32.

배인 정일권도 자신이 한국전쟁 “초전단계에서 국군을 대표하여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 고위장성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내원) 선생님께서 영어를 배운 덕분”이라고 회고하고 있듯이,¹⁵ 조승복의 영어 실력 또한 이때부터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경영자 히다키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등을 위한 정신집중법도 가르쳤는데, 조승복은 미국 유학 시절 박사과정 입학시험 당시에도 이 수양법에 따라 시험에 임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상, 256), 중학교 시절의 경험은 조승복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동창 중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본 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그중 조승복을 포함한 2명이 제일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대를 졸업하는 관비 유학 코스를 걸었다.¹⁶ 만주국 건국은 만주지역에서 일본 유학 열을 불러일으켰는데, 정부 요직에 일본 유학 경험자들이 등용되면서 일본 유학은 ‘입신출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¹⁷ 조선인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최고 희망 진로는 일본 유학이었다. 외무성 지정학교였던 광명중은 학제가 일본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다른 중학교보다 일본 유학 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¹⁸ 이들을 잇는 상위권 학생들로 동창의 3분의 1은 정일권처럼 군관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1939년 4월에 개교한 신징(新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조승복은 군관학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군관학교 지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당시 “일제 침략을 담당할 군인들이 사

15 丁一權(1996), 『丁一權回顧錄』, 고려서적, p. 47.

16 또 한 명은 이중민으로 제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도쿄제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一光會(1943), 『一光會會報』 1, 『滿洲·滿洲国』教育資料集成』 12, エムティ出版, 1993.

17 浜口裕子(2015), 『滿洲国留日学生の日中関係史: 滿洲事変・日中戦争から戦後民間外交へ』, 勁草書房, pp. 20-21.

18 花井みわ(2021), 『「辺境」の文化複合とその変容: 東アジア文化圏を生きる中国朝鮮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pp. 131-134.

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출세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조승복의 인식으로는 “조선 독립군을 학살하는 일본군의 장교가 된다는 것은 동족을 학살하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간도를 개척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가진 정신세계였다. 그런데 그 개척정신은 만주국 성립을 계기로 대일 협력 정신으로 대치되어 갔다고 한다. 광명중 졸업생들은 특히 순사보 같은 “일본의 괴뢰가 되는 직”을 제안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조승복도 예외는 아니었다(상, 83). 또한 이러한 괴뢰직을 수락해야 “일본사람처럼 대접받는다”는 선전도 이루어졌다고 한다(상, 84). 조승복은 이러한 대일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간도의 개척정신 유지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정치세력은 기독교였다”고 보았다(상, 84). 이러한 조선인 이민 사회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뒷받침했던 기독교 세력을 통해 경험했던 서양문화 등은 이후에도 그에게 식민주의의 동화 압력을 버티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내지’의 다양한 조선인들

조승복은 1938년 말에 만주국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된다. 단, 관비 유학생 합격자의 경우 도쿄에서 치러지는 제일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관비’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조승복은 일고 입학시험을 치르러 1939년 3월에 도쿄로 향한다. 용정을 떠나 상삼봉에서 함경선을 타고 원산에 도착하여 경원선으로 갈아타고 서울까지 와서 다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관부(關釜)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시모노세키(下關)까지 가서 다시 철도로 갈아타고 도쿄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다.

이때 조승복이 처음으로 경험한 조선은 ‘청청한 삼림이 덮인 만주’와는 달리 ‘대머리 같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인 ‘너무나 슬슬하고 냉기가 충만

한 풍경'에 사복경찰들이 열차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낯선 곳이었다(상, 96-97). 또한, 그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연락선 안에서 일본인 안내원이 일본인에게는 친절하고 조선인에게는 불친절한 것을 보고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민족차별'을 경험한다. 그에 비해 '만주국 유학생들'한테는 "조선 동포에 대한 태도보다 더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상, 97). 이러한 정중한 태도도 자신들이 "만주에서 왔지만 실지는 반도인"이라고 밝히면 다시 냉담해지는 체험을 한다(상, 102). 그 이유에 대해 조승복은 이미 "일제 탄압에 대한 저항력을 잃고 거세된 조선사람은 무섭지 않으니 자기들의 마음대로 경멸하지만 새로 식민지가 된 '만주국'의 중국인 학생에 대하여서는 자기들 탄압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상, 95). 대장정을 거쳐 내지에 정착하면서 만주국 출신 조선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경험을 한 그는 이때 처음으로 민족차별뿐만 아니라 재만조선인들보다 더 차별받는 식민지 조선인이나 재일조선인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조승복을 포함한 두 명은 일고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무사히 관비 유학생의 길을 보장받는다.¹⁹ 조승복이 치른 만주국 관비 유학생 시험이란 실질적으로 제일고등학교 특설고등과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특설고등과('특고'로 불렸다)란 5·4운동 이후 고양된 '과학과 민주' 지향과 일제의 대륙 침략에 따른 반일 감정 확산 등으로 미국 유학 지향이 한층 뚜렷해진 중국 학생들을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일고에 설치된 1년제 특설예과+고등학교 3년, 즉 4년의 고교과정을 개편하여 1932년에 3년제로 1년을 단축하여 설치된 코스였다. 조승복의 추측처럼 내지의 엘리트층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변호하는 친일 중국인이나 만주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매년 문과와 이과에 각각 30명을 수용

19 만주에서 관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한 세 명 중 한 명인 김기수는 이때 제일고등학교 특설고등과 입학시험에 떨어져 1년의 재수 끝에 이듬해에 합격했다.

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어 중시 정책을 고수한 까닭에 한 번도 수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조승복이 입학한 1939년에는 18명(문과 10명, 이과 8명)의 입학자가 있었을 뿐이다.²⁰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입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화교 출신 중국인 아니면 만주국 출신 학생들이었으므로, 이 목적은 제대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만주국 일본 유학생의 숫자는 확실히 증가했다.²¹

특고의 교육내용은 일본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본과’와 동일했고 거기에 일본문화에 관한 시간이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유학생들뿐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많았다”(상, 105-106). ‘특고’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도 있었고 기숙사 생활도 함께했으며, 일본 상류계급의 가정에 초대받는 등의 교류를 가지는 ‘국민 외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일고 재학생이라도 왕익권(王益權, 부산제이상업학교 졸업)²² 같은 조선 출신 조선인이나 내지 출신 조선인들은 상류나 중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 가정에 초대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조승복은 알게 된다. 일본인들도 조승복을 조선인으로 보기를 꺼렸고 늘 ‘만주국’ 학생으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조승복은 당시 일고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나카무라 히로미치(中村弘道, 1901~1988)한테서 간다(神田)에는 ‘반도인’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은 위험한 불량배들이니 가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 등 조선인에 대한 경멸에 찬 언사를 서슴지 않는 선생님들을 접한다. 그는 물론 ‘위험하다’

20 韓立冬(2011), 「旧制第一高等学校特設高等科の留学生教育」, 『アジア地域文化研究』 7, p. 6.

21 浜口裕子(2015), pp. 20.

22 왕익권에 대해서는 홍석률(2017), 『민주주의 잔혹사: 한국 현대사의 가려진 이름들』, 창비 참조.

는 의미의 이면에는 당시 조선인 학생들 중에 독립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 가담 혐의로 검거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러한 저항운동에 대한 경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학생은 “일본사회의 파리아(pariah)로 간주되었다”고 묘사하는데(상, 114), 이러한 계층 피라미드 같은 차별 구조 속에서 만주 출신 조선인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만주국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우위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승복은 정체성의 동요 속에서 일본인들의 차별의식이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를 천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근원을 가족주의적인 유교와 결합한 사회진화론의 맹신에서 찾고, 일본이 소화해 내지 못한 서양문화에 관심을 갖고 철학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상, 37-38). 그는 일본인 학생들을 설득하여 성경공부반(Bible Class)이라는 이름으로 영어공부를 겸한 서구의 동향을 관찰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이 인연으로 조승복은 미국인 선교사 테오도르 월서(Theodor Walser, 1888~1949)를 알게 되고 그의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에 끌려 기독교의 인도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월서의 부인인 글래디스 월서(Gladys Walser, 1889~1975)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의 미국 지부장으로 활약했는데, 1951년에 조승복이 미국 추방 위기에 몰렸을 때 스웨덴으로의 망명을 돕게 된다. 뒤에서 언급하듯, 조승복이 패전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스웨덴에 정착하게 되는 인연을 만든 것이 일고 시절의 인맥이었던 것이다.

1942년 9월에 조승복은 그다지 직업적 전망이 밝지 않은 도쿄제국대학 철학과에 입학한다. 그는 “우리 민족이 노예적 정신에서 빨리 해방되어 민족문화유산에 따라 새로운 민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가 일본인이 지닌 사상을 초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는 또 다른 장래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력 양성과 관련된 학술을 철학에서 찾고자 했다.

이처럼 만주를 떠나 내지를 접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조승복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전에는 거의 재일조선인과 교류를 갖지 못했다. 그

에 따르면 “식민 통치자들이 조선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독립운동’을 도모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를 꺼렸다고 한다. 그나마 교류를 가졌던 요코하마 빈민가 출신의 같은 학과 동기 김위석(金渭錫, 1917~1993) 등이 ‘학도 출신’으로 징집당하고 자신은 만주국 관비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징용에서 면제되면서 같은 조선인 사이의 차이를 더욱더 의식하게 된다. 만주국 유학생으로 배급이나 징용 면제 같은 다양한 특혜를 얻으면서도 그는 조선인으로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회 발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경 존재’(Marginal existence)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힌다(상, 157). 그런 한편으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기 나라’를 회고한다. 패전 이후가 되면 조승복의 재일조선인들과의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4. 해방 직후의 재일조선인 운동과 조승복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맨몸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잃은 조승복은 그 무렵 갑자기 교류가 활발해진 조선인 학생들로부터 빨리 귀국하여 신사회 건설에 협력하자는 요청을 받는다. 하지만 시작한 공부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일본에 남기로 한다. 조승복에 따르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선언된 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격분이 수그러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희생양으로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집단 기억을 가진 재일조선인들은 되도록 일본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8월 17일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조승복은 고립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 길로 근처에 사는 도쿄대학 선배인 김두용(金斗鎔, 1903?~?)²³을 찾아

— www.kci.go.kr
23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도일 후에는 긴조(錦城) 중학교, 구제 제삼고등학교, 도쿄제대 문

간다. 김두용은 “새로운 민족사회를 건설하려면 먼저 민족이 같은 목적으로 향하여 단결 통일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도쿄 각지에서 조직되고 있던 민족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상, 195). 김두용은 ‘통일 준비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조승복을 서무위원에 기용했다. 이때 처음으로 조승복은 재일조선인들의 대중운동과 만나게 된다. 김두용의 ‘통일’ 운동은 이후 10월 15일에 해방 직후 일본에서 생겨난 최대 규모의 동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으로 약칭)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향 출옥수이기도 했던 김두용은 45년 9월 24일에 ‘정치범석방운동총진연맹’을 결성하여, 10월 10일에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책임비서이자 비전향 정치범이었던 김천해(金天海, 1898~?)나 전후 일본공산당 초대 서기장이 된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1894~1953) 등이 후추(府中) 예방구금소에서 석방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²⁴ 이때 ‘정치범 석방 환영회’를 위해 일군의 청년들이 트럭에 나뉘 타고 후추 구금소로 향했는데, 조승복도 그 일원이었다(상, 205).

하지만, 조승복과 조련과의 인연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승복은 해방을 일제 통치제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빼앗긴 주권체 회복도 포함한 정치 행동으로 생각했지만, 전승자들이 조선사람들한테 부여한 것은 전승국 국민과 패배국 국민의 중간에 존재하는 인민이라는 뜻의 ‘해방된 인민(liberated people)’이었다. 이마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주권 회복은커녕 주권 분열의 지역적 기반이 성립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대국주의와 일본의 대륙침략주의 사이에서 고통을 받은 조선사람들에게 한반도가 다시 미소 양대 제국의 충돌지가 된다는 것은 “단일국가 상실의 일대 흉조”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

학부 미학과에서 수학했다.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의 일본공산당계 작가와도 교류하며 마르크스주의 문예비평가로 활약했다. 해방 후 조련 활동에 매진하다 1947년 6월 경에 이북으로 귀국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48년 3월)을 역임했다. 정영환(2019), 임경화 역,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 푸른역사 참조.

24 竹前榮治(2002), 『占領戦後史』, 岩波書店, pp. 168-170.

다(상, 197). 하지만 조승복에게 비친 조련의 모습은 재일조선인의 이권 옹호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면서도 단체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개의 정치 이데올로기(즉, 공산주의)로 편행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었다(상, 196). “민족의 이권을 전민족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었던 조승복은 조련과는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상, 196).

조승복은 조련과 손을 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승복이 보기에 조련은 표면적으로는 비정치적인 이권 옹호 단체임을 강조하며 미 점령군의 통역으로 활동하던 조득성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결성 당시의 ‘강령’에서도 재일동포의 생활 안정, 귀국 동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두용이나 조희준 같은 식민지기에 전향 출옥한 공산주의자들이 물밑에서 조련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보았다. 조승복에게 그들은 대략 193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좌익사상을 종교처럼 신봉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해 나가려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로 치부하며 전후 재건된 일본공산당의 결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들로 비쳤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범 석방운동을 통해 출옥한 김천해를 조련의 최고고문으로 추대했는데, 조승복은 바로 이것이 그가 조련과 절연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일본공산당 중앙위원인 김천해를 조련에 영입하는 것은 진보적 민족주의 사상으로 출발한 조련의 좌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영입 결정은 조련 결성 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신흥식(1905~1994)만이 비공산주의자들의 의견에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승복은 신흥식을 매개로 하여 조련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

신흥식은 조련 중앙총본부 외무부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조련 관련 자료 중에는 조승복이 조련의 외무부차장으로 소개된 것도 있다.²⁵ 그가 보기

25 金浩(2009), 「〈資料紹介〉『外国人登録関係』」, 『在日朝鮮人史研究』 39, 在日朝鮮人史運動

에 미군 점령하에서도 재일동포들의 이권 옹호를 요구하는 정당성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런 탓에 권리 옹호 요청이 공정하게 취급되지 못했고, 그런 이유의 대부분은 재일동포들의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조승복은 “점령군의 용어인 영어 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탓에 고경(苦境)에 빠져 있는 동포들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상, 207). 그리고 당시 우익단체들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포들의 이권 옹호에 힘쓴 재일동포 단체는 조련뿐이었다. 조승복에 따르면, 당시 합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많은 재일동포들이 암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미군 헌병대에 검거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련 외무부는 그 출옥을 위한 교섭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조승복은 신흥식을 도와 영어로 교섭을 진행하곤 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에게 GHQ의 우편물 검열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월급도 일본인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1,500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은 조승복을 대단히 흥분시킨다. 조선사람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항상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이때 “처음으로 조선인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할 정도로 묘사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상, 209). 이러한 흥분상태는 당시 일본인들이 ‘잘못된 전승국민 의식’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재일조선인들은 폭도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던 것²⁶과 표리를 이룬다.

하지만, 이 희열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45년 11월 1일에 국무·육군·해군 조정위원회(SWNCC)에 의해 승인된 「일본 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초기 기본지령」(JCS1380/15)에서 조선인은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 인민(liberaled people)으로 취급되지만 과거에 일본 신민(Japanese subject)이었던 관계로 필요에 따라 적국민(enemy national)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²⁷ 이로써 조선인의 연합국민(전승

—
 史研究会.

26 정영환(2019), p. 115.

27 https://www.ndl.go.jp/constitution/e/shiryu/01/036/036_0011.html(접속일: 2022.11.24.).

국민) 지위는 명확히 부정되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갔다. 조승복의 월급도 반으로 줄어 일본인과 동일해졌다. 그런데 조승복에 따르면 우편물 검열팀에 채용되었던 번역자 24명 중에는 류무(柳茂), 양순규(楊順圭) 등을 포함한 조선인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인의 민족 지위 강등과 대우 변경에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 파업은 미군의 준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에도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이에 대한 GHQ의 답변은 “민족의 국제적 신분은 미국 국무성에서 결정하였으므로 현지 GHQ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상, 213). 따라서 조승복에게 한반도에 단일민족국가가 건설되고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연합국민이 되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여겨졌고, 이는 재일조선인 다수의 바람이 되기도 했다.

다만, 조승복은 이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월급 3,000원이 제공되는 GHQ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소속 종교연구조사반(Religion Research Unit)의 연구원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조승복은 조사반에서 활동하면서 철학도로서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그 사이 조승복은 조련과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것은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1946년 1월 중순에 조승복이 GHQ 내의 장교클럽에서 행한 강연 내용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1945년 12월 28일에 공식 발표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한국 관련 결정 사항을 둘러싸고 남한에서는 폭발적인 반탁운동의 열기가 분출했고, 이 열기는 재일조선인사회에도 옮겨 붙었는데, 이에 당황한 GHQ 장교들이 좌우논쟁의 배경을 이해할 목적으로 그에게 강연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강연 요지를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조선의 독립은 분단된 양쪽이 빨리 통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통일의 성취는 국토를 양단한 미소 양국이 조선에서 빨리 철병하여야만 가능하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신탁통치에는 절대 반대(大反對)다(상, 230).

미소 양 대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독립한 통일국가의 건설만이 조선에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장이 되었던 이 강연은 제일동포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어 조승복은 조련의 최고고문인 김천해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게 된다. 조승복은 신탁통치를 수락하는 것이 독립의 길이라고 역설하는 김천해에게서 소련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을 느꼈고, 신탁통치 지지는 일제 통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승복에게 김천해는 너무 구식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3상협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전모가 대체적으로 드러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신탁통치안을 소련의 정책으로 인식하는 조승복의 3상협정안에 대한 이해는 다소 왜곡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3상회의 당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을 정반대로 왜곡 전달하여 반탁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기사 「蘇聯은信託統治主張 米國은 卽時獨立主張」의 출처가 조승복이 항상 참조했던 『성조지』였다는 사실²⁸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비록 독립의 시점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독립정부 수립의 길을 제시했던 3상협정안이, 좌익과 소련을 매국세력으로 무조건 비난하고 배제하며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로 몰아가는 데에 일조한 반탁운동보다 위의 강연 내용에서도 제시된 조승복의 통일안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제 냉전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소 협력을 전제로 한 좌우합작을 기반으로 한 3상협정안의 현실성 여부는 별도의 문

28 정용욱(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 역사문제연구소.

제일 것이다. 그런데도 조승복이 협정안을 신탁통치안으로만 인식하고 반탁운동 측에 섰던 것은 GHQ 내의 반소·반공 정서에서 기독교인이었던 그 자신도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뜨겁게 불붙은 반탁운동의 열기는 친일파들이 반소·반공·애국을 내세우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을 열어 주었다.²⁹ 이를 바탕으로 46년 2월 10일에는 이후 민단 결성의 주축이 되는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이 결성된다. 조승복은 민단의 권일 등으로부터 합류 제의를 받기도 한다. 권일은 1937년에 고등문과시험에 합격하여 만주국에서 판사로 종사하며 협화회 같은 전시협력체제에서 간부로 활약하다가 패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조승복에 따르면 권일은 친일파에 대한 복수가 두려워 조선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왔으며, 초기 조련에도 잠시 몸담았지만, 친일 민족반역자로 추방된 후 우익 청년들과 함께 우익단체 조직에 힘을 쏟고 있었다. 하지만 권일의 거둬드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승복은 민단 결성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에게서 도저히 ‘교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승복은 민단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이후 남한의 미군정청 도쿄 공관과도 관계를 가지며 이승만 등을 포함한 남한 인사들을 접촉하는 한편, 조선의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이어 간다. 예를 들어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로 알려진 영친왕 이은(李垕, 1897~1970)과 관련된 다음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

조승복은 종교연구조사반에서 전쟁기 만주와 조선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1946년 초엽에 노스크로프트(Erima Harvey Northcroft, 1884~1953)³⁰라는 변호사 출신 장교로부터 머지않아 열리는 극동

29 정영환(2019), pp. 148-151.

30 조승복의 한국어판 자서전 『분단의恨』에는 미국 고급 장교인 ‘Croft 해군 중좌’가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참가하는 미국 검사단의 일원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스웨덴어판 자서전 *En Korean i Folkhemmet*를 통해 Croft가 Northcroft의 오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노스크로프트는 미국인이 아닌 뉴질랜드인으로 재판에서는 판사를 역임했다.

국제군사재판(1946년 5월 3일~1948년 11월 12일)에 증인으로 출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노스크로프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중령으로 군에 복무한 뉴질랜드 출신 법률가로 이러한 경력이 인정되어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판사로 임명되어 도쿄에 머물고 있었다. 조승복은 그로부터 일본 통치하에서 조선인들이 받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므로 출정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나로서는 받은 학대가 없지만 많은 동족이 받은 학대에 대하여 내가 본 대로 증언하는 것이 동족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출정을 결심한다(상, 224). 하지만, 전범재판이 개정된 후에도 호출은 오지 않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지나 식민주의에 대한 범죄는 전쟁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³¹ 다만 그사이에 조승복이 이은을 노스크로프트에게 소개한 것은 전범재판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승복이 종교연구조사반으로 이직하자, 제일조선인사회에서는 그가 점령군에 가까운 실력자로 인식되어 그를 통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이은 측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은은 장씨라는 조선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해방된 조선 민민에게 민족 반역자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은의 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6년 늦은 봄에 조승복을 찾아왔다. 조승복은 이 문제는 민족끼리 해결할 민족의 문제로 보고 윤근과 신흥식 등 조련의 간부들과 상담한다. 조련에서는 장 씨를 납치하여 “이 왕의 재산은 조선민족 전체에 속한 것이므로 그 재산 처리는 조선이 독립된 후에 할 것”이며 “혼돈 시기에 민족의 재산을 훔쳐먹으려는 것은 비민족적 행위”라고 설득하여 참회서약서를 받고 풀어주었다고 한다(상, 221).

이 일을 계기로 조승복은 이은 측과 교류를 갖게 되어 노스크로프트와의 만남도 주선하게 된다. 이은도 전시 중에 공군사령관이었던 관계로 전범재판에 회부될 것을 우려하여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임했다

— www.kci.go.kr

고 한다. 조승복은 미국 장교들의 태도에서 이은을 전범으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은은 전범으로 추궁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승복은 자신보다 더 일본문화에 깊이 몰들어 조선말도 못 하고 조선의 대중들한테는 ‘일제의 앞잡이’로 인식되었던 이은이 새 사회의 건설 대오에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은 측에게 조선 인민들에게 용납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충고하고 “합병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조상들의 비겁한 행위에 대한 용서를 빈다, 해방된 조국에서 새 사회 건설에 매진하고자 하니 건설 대열에 넣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한글로 직접 작성하여 이은 측에 제시하였다(상, 226). 하지만 그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왕가는 그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하려는 정치 모략가들에 휩쓸려 갔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일본에 식민지 책임을 물으려던 소수의견이 존재했고, 그것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이은을 전범 소추에서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조승복은 이은을 조선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고 좌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9월에 조승복은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철학 연구로 졸업논문³²을 작성하고 도쿄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지만, 같은 해 6월부터 중국대륙이 제2차 국공내전에 돌입하게 되면서 고향인 용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막히고 말았다. 같은 해에는 주한 미군정청 도쿄 공관장 조정환(曹正煥, 1892~1967)의 제안으로 미군정청에 취직되어 서울로 옮길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때마침 9월 총파업과 대구 10·1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조승복은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지하고 귀국은 보류하기로 한다. 이에 도쿄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서양 중세 스킨라 철학을 연구 과제로 선택한다. 몇 개월 후 조승복은 GHQ를 사직하고 대

— www.kci.go.kr
32 조승복의 도쿄대학 졸업논문 제목은 「H. Bergson 哲学に於ける「持続」に就いて」이다.

학원 공부와 도미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재일동포의 이권 옹호 운동에도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자서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되기 하루 전인 5월 2일에 공포된 외국인등록령과 관련하여 조승복은 조련 외무부 차장이라는 명의로 내무성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³³ 외국인등록령이란 일본인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 대신에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을 만들어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고 조선인을 등록하여 조련 같은 민족단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 재일조선인 통제정책이었다.³⁴ 이는 동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기 때문에 조승복도 조련을 대표하여 일본정부 등에 항의하며 교섭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권 옹호 운동에서 민단계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민단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며 어디까지나 “정견의 차이를 떠나 동족이라는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힘썼다”는 것을 강조한다(상, 241).

하지만, 이러한 중립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때마침 종교반에서 알게 된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미국 미네소타 성서대학(Minnesota Bible College)에서 교직과 동시에 특별학생으로 연구도 할 기회를 제의받고 미국행을 결심한다.

5. 19년 만에 재회한 재일조선인 사회와 그 후

1948년 3월에 미국에 도착한 조승복은 가을부터 미네소타주립대학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철학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안정된 연구자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33 金浩(2009).

34 정영환(2019), pp. 174-182.

때문이다. 당시 미국 미디어의 한국전쟁 보도를 접하고 그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보아야 할 ‘동란’이 공산 진영에 대한 성전으로 묘사되어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직감한다. 그에게는 민족통일만이 ‘형제상살’의 비극 없이 동란을 수습하는 길로 보였지만, 만약 국제전으로 확전된다면 통일은 남북 양쪽에 사는 동족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았다. 조승복은 내전의 국제화의 발화(ignition)가 되는 미국의 참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여(상, 268),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반전 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6월 26일에 미네소타주립대학의 학생회가 주최하는 티치인 프로그램에서 이승만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므로 미군은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부식할 목적으로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한다. 6월 27일에 미군이 참전하자 조승복의 연설은 미네소타주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상, 269). 조승복 스스로도 『미니애폴리스 스타』(*The Minneapolis Star*)라는 지역 신문에 「조선은 통일이 최우선이라고 외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북한이 공산주의적이지 않듯이 남한도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문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있지 않고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에 있다. 현재의 외세의 군사 개입은 코리아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해방자들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³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반전 활동은 당시 매카시즘에 고취된 미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이자 유학생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조승복은 평화운동 단체나 교회 등을 돌면서 반전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나, 중국의 참전 이후가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미국의 참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체류 허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에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등의 평화단체나 민주 인사들의 조력을 얻어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 결국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망

35 Seung Bog Cho (1950), “Unity Above All! Is Korean Cry: Visiting Student Criticises American Policy,” *The Minneapolis Star*, August 17.



[그림 1] The Minneapolis Star 1950년 8월 17일자의 조승복 기고문.

명하게 된다. 그는 망명 허가를 위한 심문에서 스웨덴 경찰한테서 “FBI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선전에 매우 미혹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조승복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체류 허가를 얻었다. “나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느 쪽 선전에도 미혹된 일이 없다.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인 가부장 전제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하였을 뿐이었다”(상, 287-288).

이후 스웨덴에서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지속하여 언어학자로서 변신하는 데도 성공한다. 그리고 1967년에 연구 목적의 체류를 위해 2개월 남짓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1948년에 미국 배를 타고 요코

하마를 출발해 미국으로 향했던 조승복은 19년 후에 시베리아를 거쳐 소련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그는 “다시 집에 돌아온 듯한 친근감”을 느꼈다(상, 415). 일본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재회한 동포사회는 생활은 개선되었으나 경제활동의 조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조선인 기업가들은 여전히 은행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더욱더 본국의 정치 조류에 휩쓸려 민단과 총련 좌우 양대 방향으로 고정되어 가고 있었다. 19년 전에는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신흥식이나 한덕수(1907~2001) 같은 조선의 활동가들도 이제 김일성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자로 변신해 있었다. 하지만, 조승복은 이때도 이들과의 개인적 정견 차이는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론보다 실천에 나타나는 결과로 교우 가치를 판단하고자 했다.

1967년 독일에서 조승복이 주목했던 것은 재일동포의 민족 자주 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탄압정책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탄압은 박정희 군사 독재와 일본정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민단계 동포 자제들은 외국 유학이 가능했지만, 총련계 동포 자제들은 다른 국적을 택하지 않는 한 일단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이 불가능했다. 이것은 조승복에게 반진이라는 정치사상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의 기회를 박탈당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고, 일본정부의 이러한 재일동포 자제들에 대한 교육 탄압을 ‘문화적 집단학살’(genocide)로 규정했다(상, 419). 그는 미소 양 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스웨덴으로 총련계 동포 자제들을 유학시키는 방법을 강구했다. 스웨덴 정부도 조승복이 신분보장인이 되는 조건으로 총련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여 1967년부터 60년대 말까지 5명의 학생들의 스웨덴 유학을 도왔다. 하지만 총련계 학생들의 스웨덴 유학 지원 사업은 이 이상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7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김일성 우상화와 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자세를 취하는 총련에 대한 조승복의 비판적

거리두기도 그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1969년과 1970년에 각각 방한과 방북을 결행한 이후에는 총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진다.

1970년대 이후에는 조승복은 주로 동포조직들과는 거리를 두고 이데올로기나 여러 조류의 차이를 뛰어넘어 문필을 통해 민족 통일이나 그를 위한 민주화운동에 활약한 재일동포 지식인들과 교류한다. 안우식, 어당, 김삼규, 정경모 등이 그들이다. 우선 안우식(1932~2010)에 대해서는 조승복은 김일성 우상화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가 조선대학교에서 면직당하고 총련에서 배척당했지만, 민단체열로 가서 반공 도구로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은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지식인으로 소개했다. 안우식은 조승복이 소속한 스웨덴의 연구소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제삼자의 입장에 선 사람에게 남도 북도 여권을 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인 북한 여권으로는 일본으로 재입국을 할 수가 없었다. 조승복은 일본의 이민정책 자체가 냉전 논리를 재일동포사회에 반영시켜 어느 한쪽만을 택하게 하여 제삼자적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재일동포들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다행히 안우식은 어떤 유지의 도움으로 '변절'하지 않고 이남의 여권을 얻을 수 있었고,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스웨덴의 연구소에서 조승복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 조승복은 일본어로 창작한 김사량의 유고를 번역 정리하여 전집으로 출판한 안우식의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총련계의 동포들 사이에서 당시 일본어 창작은 반민족적인 행위로 여겨졌지만, 조승복은 “우리민족 문화유산은 일본 문단에 번역 소개한 것”을 안우식의 공로로 평가했던 것이다(하, 680-681).

어당(魚塘)은 총련의 간부로 청춘을 바쳤지만, 총련에 실망하고 산하에서 벗어나려 하여 삼천리 그룹과도 교류를 가졌던 인물로 소개된다. 삼천리 그룹이란 1975년에 창간된 계간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에 참가하여 논문을 펼쳤던 김달수, 이진희, 강재언, 이철 등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총련

과의 갈등 속에서 조직을 떠난 재일조선인 1세대들로, 조승복은 삼천리 그룹과 어당을 대국적으로는 총련을 지지하면서도 남쪽의 진보세력과의 연계를 가지며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어당처럼 총련에서 독립하고 싶지만 이미 다른 세계로 나가기에는 너무 청춘을 허비한 사람들을 조승복은 동정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 같다.

한편, 조승복은 총련과 거리를 두며 1957년에 잡지 『코리아 평론』(코리아評論)을 창간하여 독자적으로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전개했던 김삼규(1908~1989)와도 교류한다. 조승복은 사회적 실천 속에서 중립을 추구했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중립주의를 명확히 한 바는 없다. 그 가운데 김삼규의 통일론이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여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들의 이해에 맞는 통일방안으로 중립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김삼규의 통일론을 지침으로 삼으며 조승복은 자신의 중립주의를 실천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과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비슷한 재일 지식인으로 정경모(1924~2021)와도 교류한다. 정경모가 문익환과 1989년에 남북했던 것도 언급한다.

조승복은 이들을 통일과 민주화에 대해 독자적인 의견을 표명해 온 재일동포들로 보고, 이들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는데, 이들을 남북한 혹은 미소 어느 진영과도 거리를 두는 고립된 위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상상하며 실천하려 했던 사람들로 인식했다. 이들에 대한 공감과 교류는, 조승복 자신이 해방 초기에 조련과 민단 모두에 거리를 두는 중립을 지향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이권 옹호에 힘쓰는 한편,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통일운동에 매진했던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사회적 실천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향하려는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조망하며 교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맺음말

중국과 조선의 경계의 땅 만주에서 태어나 조선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이 일본어로 교육을 받으며 일본인과 정서적인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던 경계인 조승복은, 조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기독교 정치세력이라는 서양문화와 연결되어 있었던 동포조직의 보편적 가치 추구나 반식민주의의 저항성, 진취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체류를 통해 차별받는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제국주의의 억압을 실감한다. 그는 제국주의적 차별구조에서 벗어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민족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해방된 통일국가를 꿈꾸었다. 만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민족국가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동경이 그의 정체성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해방 직후 재일동포들의 통일운동이나 권리 옹호를 위한 운동에 동참했고 그러면서도 경계인으로서의 위치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중립 지향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해방이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국이 분단되고 그에 따라 재일조선인 사회도 분열되자, 그는 분단된 코리아의 어느 쪽과도 거리를 두며 국제 냉전 속에서 중립의 장소를 찾아 미국으로, 거기에서 다시 스웨덴으로 자의 혹은 타의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다. 그것은 아직 현실에 없는 통일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조국을 고집스럽게 추구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 2세로 외국 국적자(한국)로 일본에서 첫 변호사가 되어 재일외국인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김경득(金敬得, 1949~2005)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의 세대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재일동포 1세는 한국·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 가장 적나라한 차별과 동화를 겪었음에도 한국·조선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2세는 1세가 혹독한 차별과 동화에 노출되면서도 여전히 잃지 않았던 민족성을 태생적으로 박탈당한 세대, 따라서

민족성 탈환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라고 구분했다.³⁶ 민족교육을 받지 않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김경득은 민족 차별에 맞서며 권리투쟁 속에서 의식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했다. 본고에서는 주로 조승복의 자서전 두 편에 기대어 주로 재일조선인사의 측면에서 그의 이력과 활동을 재구성해 보았다. 자서전이 갖는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가 스웨덴에 남긴 방대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 가야 하는 과제다. 다만, 태어나서 단 한번도 민족적 소수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코리언 디아스포라 2세 지식인으로서 “민족성 탈환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며 현실의 차별문제에 끊임없이 맞서면서도 통일 조국을 그리며 조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찍이 중립의 지대를 지향했던 조승복의 삶은 재일조선인사의 측면에서도 선례로서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조승복(2004), 『분단의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斷想集』 상·하, 대구: 케리그마.
 Cho, Seung-Bog (2014), *En Korean i Folkhemmet*, Podium.
 Cho, Seung-Bog (1950), “Unity Above All! Is Korean Cry: Visiting Student Criticises American Policy,” *The Minneapolis Star*, August 17.

논저

- 김기훈(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국내 이민(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김영호(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을 읽고」,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36 金敬得(2005), 『新版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 明石書店, pp. 20-21.

- 변광수(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 이현복(2015), 「고루 이 극로 선생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며」, 『고루 소식』 6, 고루 이극로 박사 기념사업회.
- 정영환(2019), 임경화 역,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 서울: 푸른역사.
- 정용욱(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 역사문제연구소.
- 丁一權(1996), 『丁一權 回顧錄』, 高麗書籍.
- 지충남(2013), 「재일동포 사회의 '제3의 민족통일운동'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18(4), 한국동북아학회.
- 홍석률(2017), 『민주주의 잔혹사: 한국 현대사의 가려진 이름들』, 창비.
- 飯沼二郎 編(1988), 『在日韓国・朝鮮人: その日本社会における存在価値』, 海風社.
- 一光會(1943), 『一光會會報』 1, 『滿洲・滿洲国』教育資料集成』 12, エムティ出版, 1993.
- 倉田明子(2020), 「近代中国「間島」地域のキリスト教」, 『Quadrante』 22, 東京外国語大学 海外事情研究所.
- 金敬得(2005), 『新版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 明石書店.
- 金哲(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 金浩(2009), 「〈資料紹介〉『外国人登録関係』」, 『在日朝鮮人史研究』 39, 在日朝鮮人史運動史研究会.
- 竹前栄治(2002), 『占領戦後史』, 岩波書店.
- 花井みわ(2021), 『「辺境」の文化複合とその変容: 東アジア文化圏を生きる中国朝鮮族』, 東京: 御茶の水書房.
- 浜口裕子(2015), 『滿洲国留日学生の日中関係史: 滿洲事变・日中戦争から戦後民間外交へ』, 勁草書房.
- 韓立冬(2011), 「旧制第一高等学校特設高等科の留学生教育」, 『アジア地域文化研究』 7,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アジア地域文化研究会.
- 許寿童(2008), 「間島光明会と永新中学校: 韓日中の「理想郷」は可能だったろうか」, 『만주 연구』 8, 만주학회.
- 水野直樹・文京洙(2015),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岩波書店.
- 森田芳夫(1996),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 黃有福 主編(2009), 『中国朝鮮族史研究』, 民族出版社.
- Lie, John (2008), *Zainichi (Koreans i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sic Initial Post Surrender Directiv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JCS1380/15). https://www.ndl.go.jp/constitution/e/shiryo/01/036/036_0011.html (접속일: 2022.11.24.)

ABSTRACT

In Search of Neutrality-Oriented Zainichi History

Lim, Kyounghwa*

A Post-war History of Cho Seung-Bog, a
Korean from Manchuria

Usually, post-war Zainichi history tends to be described in terms of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between pro-South Korean Mindan and pro-North Korean Chongryŏn. This confrontational structure crystallized soon after Liberation, and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even into the present day, despite the general weakening of the Korean diasporic organizations' influence in Japan. However, there were continuous attempts to overcome this institutionalized confrontation – in fact, these attempts started also right after the Liberation. This paper will deal with one such attempt, discernable in the post-Liberation activities of Cho Seung-bog (1922-2012). Born in Manchuria, educated in Japan and later famous as a Sweden-based scholar of East Asian languages and unification activist, Cho is deeply related also to Zainichi society's history. Cho resided in Japan for 9 years, from the time he was enrolled at the First High School in 1939 and until he, as a graduate of Tokyo University, left for America in 1948. Having started by studying for career advancement, Cho ended up as an activist dreaming of building an ideal democratic society in united Korea. Active in the Zainichi movement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since 1945, Cho continuously liaised with the Zainichi milieu even after settling in Sweden. As not an out- and in-sider in Zainichi society, he remained a boundary personality tightly related to it even after leaving it. His memoirs, written in the 1990s, reveal his special identity of a Manchurian-born Korean, and a number of unique experiences it entailed. One of these experiences was the history of the Zainichi community, and his attempts to overcome the confrontation inside it, viewed from a perspective of a boundary-placed participant-observer. This paper, based on his memoirs, attempts to reconstruct the post-1939 history of Zainichi community as depicted by Cho, and searches his activities for the roots of Zainichi's quest for neutrality amidst the national division system.

Keywords Cho Seung-bog, Zainichi Koreans, Neutralism, Korean Unification Movement, Manchuria, Ch'ongryŏn, Mindan